

담당자: 기후솔루션 커뮤니케이션 담당 권오성
010-9794-9483, Osung.kwon@forourclimate.org

2024년 2월 29일 오전 11시 엠바고

“석탄, 화석연료 보험 중단하라”... '세계 액션 주간' 광화문 광장서 삼성화재, 도쿄해상 등 겨냥 액션

2월26일~3월3일, 세계 기후환경단체가 보험의 변화 촉구하는 Global Week of Action 돌입
기후솔루션(서울), 경남환경운동연합(창원),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 등 한국 단체도 동참
“삼성화재, 현대해상, 도쿄해상 등은 석탄발전소의 생명유지장치 역할을 멈춰라”

세계 보험사의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세계 액션 주간'(Global Week of Action)을 맞아 29 일
기후솔루션, 경남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단체가 삼성화재, 현대해상과 도쿄해상 등의
탈화석연료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액션을 펼쳤다.

[\[공유 사진을 받으실 수 있는 폴더 링크 - 29일 퍼포먼스 뒤 12시께 자체 촬영 사진 업로드 예정\]](#)

이날 캠페인 참가자들은 주변 주민에게 호흡기 질환 등 각종 건강 위협을 끼칠 뿐 아니라 인류의
기후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는 석탄발전소의 생명유지장치가 되고 있는 보험사에 대한 비판을
형상화해 방독면 등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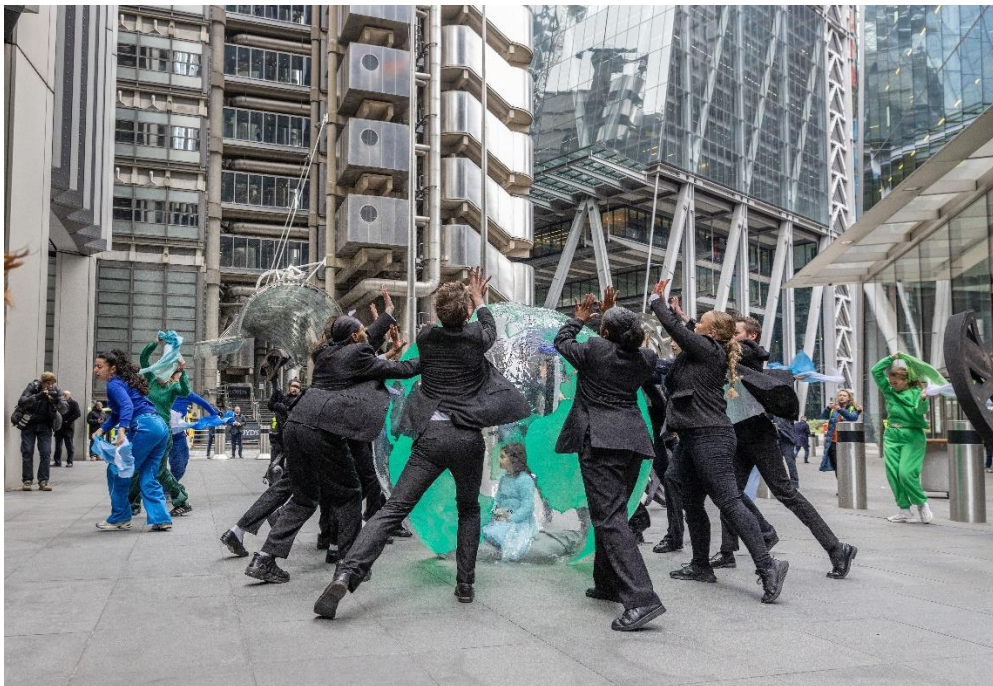


사진 1. 26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세계 액션 주간을 맞아 '어머니가 일어나다'(Mothers Rise Up,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어머니들의 단체)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가운데 풍선 지구 안에 앉아 있는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처: Anna Gordon(Mothers Rise Up)

세계 액션 주간은 기후위기에 대한 보험 업계의 책임을 촉구하는 세계 기후 활동가들의 동시 캠페인으로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다. 기후솔루션을 비롯해 그린피스, 우르게발트 등 29개 이상의 세계 기후환경단체가 참여해 보험업계의 기후 정책 도입을 압박하는 연대체인 [인슈어 아워 퓨처](#)(Insure our Future, 이하 'IoF')가 주최한다.

이에 세계 30개 단체가 지난 26일부터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및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페루, 나이지리아 등에서 각지의 이슈와 문화를 살린 다양한 액션을 펼쳤으며, 다음달 3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이 구글 지도](#)를 통해 세계 액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국내외 액션 사진을 다운 받으실 수 있는 폴더\(국내, 해외를 구분하여 지역별 구분한 폴더에 담김\)\]](#)



사진 2. 26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카라왕(Karawang)에서 세계액션주간(Global Week of Action) 참여 단체가 석탄발전소에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삼성화재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KRuHA(인도네시아 시민단체)



사진 3. 27일(현지시각)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세계 액션 주간 참여 단체가 삼성화재와 도쿄해상 등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 출처: Pakistan Fisherfolk Forum

국내 경우 업계 1 위 회사인 삼성화재는 아시아 보험사 최초로 석탄 노출도가 30% 이상인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는 석탄 제한 정책을 도입해 석탄 채굴 시설,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건설 및 운영 보험), 신규 석탄 인프라에 대한 보험 인수를 제한했다. 또 국내 보험사 중 유일하게 석유와 가스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석탄 보험 인수에 대해선 아직도 중단 계획이 없고, 국내 주요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자회사를 둔 한국전력과 같은 공기업에 예외를 두고 있어 제한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국내 2 위인 현대해상은 보유 시장 규모에 비해 인수 및 투자에 대한 석탄 제한이 매우 약하다. 석탄 채굴 및 발전 사업에 대한 신규 인수만 제한하고 있으며, 석유와 가스에 대한 언급은 없다. 또 한국 액션의 타깃 해외 보험사인 도쿄해상 경우 IoF 집계 기준 세계 15 위의 화석연료 보험 제공사로서, 2022 년 기준 화석연료 회사로부터 4 억 7500 만 달러(약 6300 억원) 보험료를 받았다. 또 이날 서울뿐 아니라 창원(경남환경운동연합), 당진(충남환경운동연합) 등 지역에서도 세계 액션 주간에 동참하는 액션이 펼쳐졌다.

서울 액션을 기획한 기후솔루션 엘레오노라 파산 연구원은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그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해 도쿄해상,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을 포함한 보험업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세계 다른 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여기에 모였다”며 “이들을 포함한 주요 보험사들은 최소 30%(매출 또는 발전량 기준) 이상의 석탄 기업에 대한 투자 및 보험 인수 제한 기준을 즉시 도입하고 향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은 “이들 보험사는 석탄 관련 운영 보험 갱신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한 정책을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끝